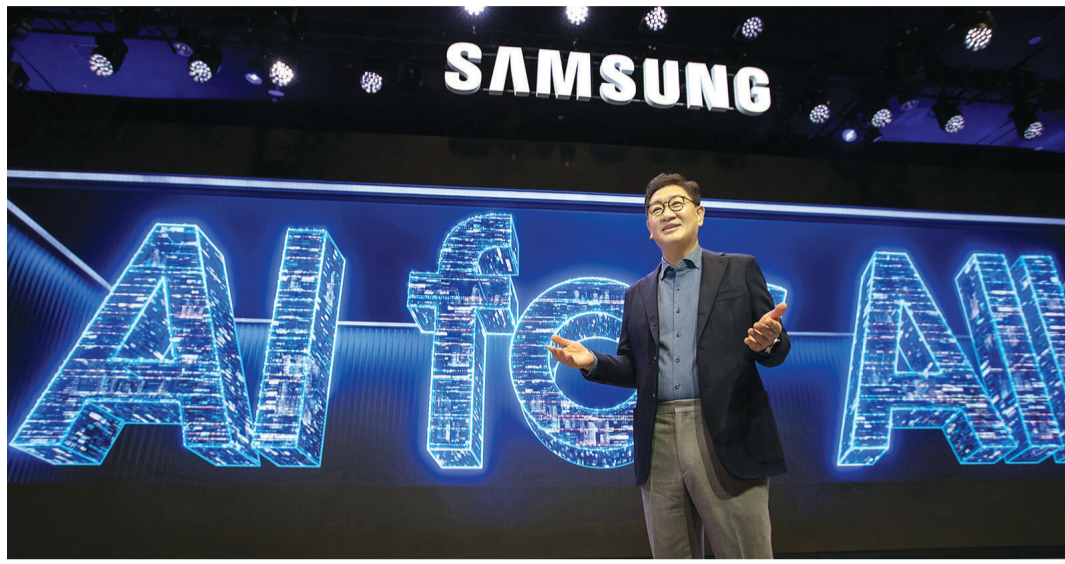


기아·삼성전자, AI 시대 겨냥 최첨단 기술력 선보인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기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중형·대형·소형 '완전한 맞춤형'
2025년 첫 중형 PBV PV5 출시

삼성전자, 모두를 위한 AI
강력한 보안 솔루션·초연결 경험
TV·냉장고·모바일 신제품 선보여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주제로 열린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 사전 미디어 데이에서 송호성 기아 사장이 PV5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인의 시선이 국내 기업으로 쏠리고 있다.

전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AI 시대를 겨냥한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기아는 개막을 앞둔 8일(현지시간) 미디어 데이를 열고, 두 회사가 가진 앞으로의 비전을 각각 공개했다.

◇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 - 삼성전자의 AI비전-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삼성전자는 기술을 넘어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10년 넘게 투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 녹스를 기반으로 발전한 삼성

녹스 매트릭스를 올해 중 삼성전자 TV와 패밀리 허브 냉장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 녹스 매트릭스는 상호 모니터링해 문제가 된 장치를 분리해 다른 기기의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갤럭시 A시리즈까지 확대된 삼성 녹스 볼트는 링크드·비밀번호·패턴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준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취약점을 연구하고 위협에 선제 대응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TV와 가전, 모바일 신제품도 대거 선보였다.

'AI 스크린 시대'를 이룰 2024년형 네오(Neo) QLED 8K에는 8배 늘어난 512개의 신경망을 보유하고, 2배 빨라진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한 AI 프로세서 'NQ8 AI 3세대'가 탑재됐다.

이목을 끈 투명 마이크로 LED와 프로젝트 최초로 8K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더 프리미어 8K', 액자 형태의 스피커 '뮤직 프레임'을 내놓았다.

또 식재료 입출고 시 카메라가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 7형 LCD 스크린이 탑재된 인덕션 '애니플레이스' 등 연결성을 강화한 생활 가전을 선보였다.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길 필요 없이 한 대로 세탁물에 따라 맞춤 세탁 건조하는 '비스포크 AI 콤보', 바닥 재질에 맞춰 청소하는 '비스포크 제트넷 콤보'도 공개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기술과 파트너십도 함께 발표했다.

◇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 기아도 이날 열린 CES 미디어데이에서 '준비된 기아가 보여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PBV와 관련한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기아의 CES 참가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아의 PBV 전략은 전통적 자동차 개념을 탈피한 PBV 라인업 출시, 이시스웍·다이내믹 하이브리드 등 신기술 적용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기아는 PBV를 전통적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는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Platform Beyond Vehicle)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기아는 이러한 정의에 맞춰 중형·대형·소형으로 이어지는 PBV 라인업 구축, '완전한 맞춤형'(비스포크)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PBV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기아는 2025년 첫 중형 PBV인 PV5를 출시한다.

기아는 PV5에 차량 호출, 배달, 유틸리티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라이프 모드를 교체할 수 있는 커넥션 기능을 탑재한다. 이 단계에서 디지털 제어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관리 지원으로 데이터 연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PBV를 개인의 기호와 목적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비스포크 모빌리티 솔루션' 형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기아는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자율주행,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로보틱스 등 신기술과 현대

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과 연계한 PBV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 PBV 라인업은 스퀘어바드 기반의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위에 고객 요구에 맞는 모듈(어퍼바디)을 체결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기아 PBV 라인업의 기본이 될 PV5는 전용 EV 플랫폼과 확장된 축간거리에 따른 넓고 평평한 실내 공간이 특징이다.

특히 책상과 같은 평면을 제공하는 운전석 콕핏과 위로 꺾어서 책상 램프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어링휠은 운전자에게 사무실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는 CES 2024 전시 부스에서 PV5 콘셉트 모델 외에도 대형 PBV PV7과 소형 PBV PV1 콘셉트 실물도 공개했다.

기아는 PBV에 적용되는 소비자의 스타일에 맞게 라이프 모드를 교체할 수 있는 이시스웍과 다품종소량생산 체계인 다이내믹 하이브리드 등 신기술도 이날 공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30명 배출...3월 14기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단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등 관계자와 홍보대사가 참여했으며, 홍보대사의 활동이 담긴 영상 시청, 활동 소감 발표, 수료증 전달식, 우수팀·우수홍보대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3기는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30명이 선정돼, 지난해 4월 말 발대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광주은행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새로운 브랜드 홍보 기획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특히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3기는 'MZ' 세

대의 젊은 방식으로 ▲YOUTH 고객을 위한 소비 꿀팁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금융교육 ▲광주전 '쓰담달리기' 봉사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36회 사회공헌활동 및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1기부터 13기까지 총 43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를 배출했다. 오는 3월부터 대학생 홍보대사 14기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체불임금 지급 위한 대출요건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
대지급금 안값으면 신용제재

앞으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과 대지급금을 갖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용자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만 신용제재를 받았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산업인력공단, 만34세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응시료 감면 사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으며, 2024년 기준 1989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3회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는 큐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소상공인 '동행축제' 효과

눈꽃축제 1조856억원 등 지난해 매출 4조원 육박
온·오프라인 7291억...지역사랑상품권 1146억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실적이 1조8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세 차례의 동행축제로 거둬들인 매출은 3조9925억원에 이른다.

축제별 매출은 5월 봄꽃 동행축제 1조1934억원, 9월 황금녘 동행축제 1조7135억원이었다.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 기간 매출(2029억원)은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동행축제 실적은 당초 목표(3조원)를 133.1%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된 목표(4조원)의 99.8%에 달하는 실적이다.

눈꽃 동행축제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TV 흡쇼핑 등 온라인 채널,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7291억원, 온누리상품권 241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146억원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금호타이어, 교통사고 유자녀 역량강화 멘토링

금호타이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로 피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역량강화 멘토링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업(業) 연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6명의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학습 의욕 향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생들은 ▲SW코딩 ▲진로 ▲진학 등 3가지 멘토링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1대 1로 온라인 멘토링을 경험했다.

SW코딩을 선택한 학생들은 SW코딩 로봇 체험 교구를 활용하여 실습을 하고, 전문 강사와 화상 멘토링을 진행했다.

진로 프로그램은 진로 워크시트와 진로포토폴

리오 등을 제작하고 관련 전문가와 멘토링을 실시했다.

진학 멘토링은 진로발달검사를 진학 전문가의 멘토링 전후에 시행해 결과보고서를 학생에게 제공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프로그램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적 특성과 연계된 공헌활동을 펼치고자 늘 고민하고 있다"며 "수혜자들을 위해 더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파트너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며, 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앞두고 관련주 상승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시한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9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날 종가 대비 7.33% 오른 64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빗썸코리아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3.28%)과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6.55%), 블록체인 판테크업체 갤럭시아머티리(9.41%) 등도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한인 1월 10일이 다가오면서 1비트코인(BTC)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 이날 새벽 4만7000달러를 돌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1.24(-6.58)
↑ 코스닥	884.64(+5.30)
↓ 금리(국고채 3년)	3.255(-0.042)
↓ 환율(USD)	1315.70(-0.30)